

초등학교에서의 발음 및 청취교육

김정렬(한국교원대)

현재 초등영어 교수방법과 절차의 규범이 제 6 차 교육과정인데, 그 기본 정신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이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우선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며, 의사소통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언어적 행위로 본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기능의 숙달에 두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보면, 발화내용의 문법적 정확성은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기능의 숙달에 두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보면, 발화내용의 문법적 정확성은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다. 초등학교 16종 영어 교과서도 의사소통 기능들을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의사소통식 교수 방법의 정신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에서만만큼은 아직도 의사소통식 교수방법을 무시하고, 정확한 발음의 명시적인 설명이나, 예시에 그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6차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해설서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발음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흐르는 의사소통식 영어교육의 맥을 완전히 끊고, 단지 정확한 발음의 해부학적 예시와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발음기관의 단면도를 이용한 해부학적 발음의 예시는 특정 자음의 정확한 혀의 위치를 알려 줄 수는 있지만, 발음훈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동력전달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자를 읽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자전거를 타고자 하면, 실제로 타고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음훈련의 경우 교재의 내용이나 의사소통 기능은 의사소통식으로 가르치면서도 발음만큼은 아직도 원어민의 입모양을 활용한 듣고 따라하기 식의 전통적인 방법의 발음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발음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본인의 논문에서 제시되었지만, 초등학교에서 듣고 따라하기나 듣고 골라내기와 같은 방법으로 발음훈련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쉽게 지루해 하고, 아마 영어시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발음연습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현재 의사소통식 교수방법을 모태로 한 교과서에서도 의사소통식 발음지도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아쉬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발음을 지도하는 목적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이상적인 동기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실질적인 동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나 동기는 배우는 학생들의 연령이나 학

습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미국에 이민간 어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무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씩 영어를 공부하고도 영어로 무엇을 말하면, 우선 그가 하는 발음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 교사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음지도에 임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어민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그들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앓다. 현재, 과외광풍이라고 불리는 열병에 시달리는 도시의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은 교육부의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으로 들어 온 원어민 교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고작이다.

또한, 유아기를 지나서 학생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다른 언어의 발음체계를 배워야 하므로 모국어인 한국어의 교란현상이 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발음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영어로 된 말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 이해될 수 있는 인지도 (intelligibility)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원어민의 발음을 흉내내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발음하는 것이 초등영어 발음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발음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발음 지도의 핵심은 그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고, 모방성이 강하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발음을 지도하는 길은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의 다른 영역들처럼, 학생들은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교사는 이들 활동을 통해서 교수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아래에 기본적으로 성인들에게 하던 최소대립쌍에 관한 연습을 초등학교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소개한다.

O.K 목장의 결투

준비물: 물총 2 개, 최소대립쌍의 그림카드, 카우보이 모자 2개

- (1) 아동들을 두 조로 나눈 후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온다.
- (2) 교사는 칠판에 최소대립쌍 그림카드를 붙이고, 학생들에게 이들의 발음의 차이를 충분히 익히게 한다.
- (3) 대표로 나온 학생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물총을 들고 칠판을 등에 지고 3m 쯤 떨어져 선다.

- (4) 이때 교사가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면 나머지 아동들도 발음을 따라하고, one, two, three를 외쳐준다.
- (5) 대표로 나온 아동은 구령에 맞춰 앞으로 걸어 간 후 뒤고 돌아 교사가 발음한 단어를 향해 물총을 쏜다.
- (6) 틀리거나 잘못 단어를 찾은 팀은 다음 아동이 나오도록 한다.
- (7) 단어를 맞춘 팀에는 보자를 준다.
- (8) 게임이 끝난 후 모자의 수를 세어 우승 팀을 정한다.